

새만금에 여의도 10배 '수상태양광 발전시설' 세운다

서울 여의도 면적의 10배 규모로 원자력발전소 2기에 해당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이 전북 새만금에 들어선다.



▲ 전북 군산시 군산2산업단지 유수지의 수상 태양광 발전소

18일 '경향신문'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일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새만금개발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등의 특수목적법인(SPC)이 신청한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허가했다고 밝혔다.

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이 사업은 새만금 지역 중 상대적으로 개발수요가 적은 군산공항 인접 새만금호의 약 30km²를 활용해 원전 2기에 해당하는 2.1GW(기가와트) 규모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다. 현재 세계 최대인 중국 하이난 태양광 시설(150MW)의 14배, 지난해 기준 전 세계 수상태양광 설치량(1.3GW)의 1.6배에 달하는 규모다.

내년 상반기까지 환경영향평가, 공유수면 점용·사용 허가 등 관련 인허가를 마치고 하반기 착공해 2022년 4월까지 1단계 1.2GW, 2025년까지 2단계 0.9GW를 완공하는 게 목표다.

이 시설이 완공되면 약 100만가구에 청정 재생에너지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고 산업부는 밝혔다. 이는 2030년까지 총 30.8GW 규모의 태양광 확보를 목표로 하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프

로젝트이다. 초미세먼지(PM2.5) 273t과 이산화탄소 100만t을 감축하는 효과도 기대된다. 이는 소나무 1억7,000만 그루를 심는 것과 유사한 효과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.

재생에너지 업계에는 약 2조5,000억 원 규모의 설비·기자재 시장이 열리고, 초대형 수상태양광 발전단지 건설·운영 경험으로 해외시장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. 민간투자자금 4조6,000억 원, 연 160만명 건설인력 참여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산업부는 예상했다. 발전사업 중 30%에 주민이 채권 등으로 참여해 이익을 공유하는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 지역 환원 모델도 실험한다.

산업부 측은 "수상태양광 패널은 이미 수도용 위생안전기준에 부합하는 자재를 쓰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새만금 사업에는 현행보다도 더 엄격한 환경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겠다." 고 밝혔다.

청년들 첫 취직까지 10.8개월 걸려

청년들이 첫 직장을 구할 때까지 기간이 점차 길어져 평균 11개월 가까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.

첫 직장에서 월 150만 원을 못 받는 청년들은 작년보다 줄고 150만~200만원 미만 구간은 늘면서 첫 직장의 임금수준은 높아졌다.



1년 전보다 4.2%포인트 상승했다. 이들의 평균 근속기간은 1년 1.6개월로 0.3개월 감소했다. 첫 직장 평균 근속기간은 1년 5.3개월로 1년 전보다 0.6개월 줄어 들었다. 첫 일자리를 그만두는 보수,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불만족이

16일 '연합뉴스'가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'2019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'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최종학교 졸업(중퇴) 후 첫 일자리가 임금근로자인 경우 첫 취업까지 걸리는 평균 소요기간은 10.8개월이었다.

1년 전보다 0.1개월 길어졌다. 첫 취업 평균 소요기간은 고졸 이하가 1년 3.8개월로, 대졸 이상(8.0개월)보다 길었다.

첫 취업까지 걸리는 시간은 2015년 10.0개월, 2016년 10.2개월, 2017년 10.6개월, 2018년 10.7개월 등으로 매년 길어지는 추세다.

이처럼 어렵게 취업에 성공했지만 청년 3명 중 2명은 첫 직장을 그만두는 것으로 파악됐다. 첫 일자리를 그만둔 임금근로자는 전체의 67.0%

49.7%로 가장 높았다. 첫 일자리가 현재 직장인 경우는 33.0%로 1년 전보다 4.2%포인트 하락했다.

청년층(15~29세)이 첫 직장에 취업할 때 받는 임금은 150만~200만원 미만 구간이 34.1%로 가장 많았다. 이는 1년 전보다 0.3%포인트 상승한 것이다.

반면 100만~150만원은 27.7%로, 1년 전보다 3.4%포인트 줄어 들었다. 이어 200만~300만원 18.1%, 50만~100만원 12.5%, 50만원 미만 5.1%, 300만원 이상 2.4% 순이었다.

통계청 정동욱 고용통계과장은 "첫 임금이 150만~200만원 구간에 속하는 취업자 수가 작년보다 더 늘어났는데, 물가상승분 반영 등의 사유로 명목임금이 상승한 것으로 볼 수 있다." 고 설명했다.

34년을 오직 한 길

벨플라워/세리토스/다우니/플러튼/롱비치/놀릭

빅토리리 바디샵

VICTORY BODY & SHOP

LIFETIME WARRANTY!

최대의 시설 / 만족한 서비스 / 저렴한 가격

- ✓ 보험 수리 전문 (일단, 전화 먼저 주세요!!)
- ✓ Lease Return
- ✓ 보험 없는 분들 오시면 부담없이 수리해 드립니다
- ✓ 전화 or 방문상담 환영
- ✓ Towing & Rent Car



☎ (562)920-9745~6

17441 Clark Ave. Bellflower, CA 90706

Email: victoryautobody@gmail.com

